

입주 7년 지났는데...나주혁신도시 부영아파트 하자에 몸살

4개 단지 4700여 가구 '부실시공' 논란 여전...보수한 곳서 다시 하자까지

A단지 마룻바닥·화장실 타일 등 9개월간 재시공 1100건 달해

'하자 보수 당일 처리' 개선안에도 일주일 이상 대기 불편 여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부영 아파트 입주주민들이 수년동안 아파트 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통 받고 있다.

일명 '부영 도시'로 불리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는 부영그룹이 지은 아파트 세대수만 약 5000세대에 달하는데 대다수 단지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입주 7년이 지난 부영아파트 A단지(1558세대)

의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까지 접수된 A단지의 '하자 재시공' 건수는 1090건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마룻바닥 630건, 화장실 타일 파손 460건 등이다. 집안 마룻바닥이 벗겨지고, 화장실 벽면 타일이 깨지고 금이 가는 등 부실시공 논란이 입주 때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A단지는 입주 시작된 지난 2018년부터 이 같

은 문제가 지속돼, 입주자가 하자 보수를 신청해도 일주일 이상 대기하는 등 주민의 불편이 잇따랐다.

입주자들의 불만이 속출하자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하자 보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바 있다. '하자 보수 당일처리'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 관리와 보수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시공 단계에서 발생한 근본적인 하자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수한 곳에서도 다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입주자들은 하소연한다.

A단지 입주자 김모(49)씨는 "지난 2020년 입주했는데 불과 3년 사이 하자보수 신청을 최소 10번은 한 것 같다"며 "심지어 이미 보수를 한 화장실 타일이 다시 금이 간 경우도 있었다"고 불평했다.

또 다른 입주자 이모(여·33)씨는 "마룻바닥이 울퉁불퉁한 것은 기본이고, 벗겨지기까지 해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나왔는데, 최근에는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서 깜짝 놀란 적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내 부영그룹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하자 보수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영그룹이 시공한 또 다른 아파트단지 역시 지난 2016년 분양 시작과 동시에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마룻바닥 벗겨짐, 화장실 타일 깨짐 등 다른 단지와 비슷한 하자가 발생해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됐다.

이 아파트 입주인 대표는 주민들의 채권양도를 통해 전체 입주인의 98.9%에게 동의를 얻어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재판을 벌여 승소하기도 했다.

또 화재 발생에 대비한 방화문이 안전 조건 미달 판정을 받아, 입주민들과 부영그룹 사이 법적 분쟁

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측이 3년전 분양한 또다른 아파트 역시 하자보수 문제로 법적다툼이 진행 중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하자 발생에 따른 불편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직접 시공한 하청업체가 부실했던 점은 인정한다"며 하청업체 측에 책임을 돌렸다.

인-허가를 담당했던 나주시는 "주택법에 따라 중대한 내역 구조에 하자가 있을 때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다는 주택법 조항은 있지만, 마룻바닥, 화장실 타일 깨짐 등의 마감 자재 하자 문제에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이 시공한 아파트는 4개 단지(64개동), 4700여가구에 달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후원 김치 잘 전달하겠습니다

16일 광주시 북구청 주차장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사)한국나눔연맹에서 후원한 580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10kg 1000박스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기위해 차량에 싣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지난해 '역대급 더위'에 비 많았다

광주기상청 '2023년 기후분석'

광주·전남 연평균 기온 15.0도 9개월 동안 기온 평년보다 높아 광주 강수량 2116.1mm 달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고 비가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6일 '2023년 연 기후분석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연평균 기온은 평년(13.9도)보다 1.1도 높은 15.0도를 기록했다. 1973년 광주·전남지역에서 기상 관측이 이뤄진 후 최고였던 2021년보다 0.2도 높았다.

광주 연평균 기온은 2020년 14.2도, 2021년 14.8도, 2022년 14.4도, 2023년 15.0도로 높아지는 추세다.

12개월 가운데 9개월 동안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으며, 1·7·11월을 제외한 모든 달의 기온이 평년을 웃돌았다. 3월 기온은 평년보다 2.9도 높은 10.2도를 기록해 역대 최고를 경신했으며, 6월(22.4도·역대 3위), 9월(23.9도·2위), 12월(5.3도·3위)도 평년 기온을 크게 넘

어섰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과 우리나라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한 가운데, 남풍계열의 따뜻한 바람이 자주 불어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광주에는 2116.1mm의 비가 내려 연 강수량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평년 대비 53.3% 많았다.

광주·전남을 통틀어 연강수량은 1863.3mm로 평년(1294.3mm~1523.1mm)보다 34% 많아 역대 네 번째로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연강수량 순위는 1985년 2189.6mm, 2003년 1956.3mm, 1999년 1884.7mm 순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마철을 포함한 5~7월에 강수량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장마철(6월 25일~7월 26일) 광주·전남 강수량은 765.5mm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광주는 1102.5mm로 장마철 강수량 역대 1위를 경신했으며, 목포 또한 783.4mm로 역대 최고량을 찍었다.

기상청은 지난해 전반적으로 따뜻한 고기압과 찬 고기압 사이에서 전선이 활성화되고, 중국 남부지방에서 수증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발달해 남서풍이 많이 불면서 비 또한 많이 내린 것으로 해석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무등산·지리산 국립공원서 새로운 습지 발견

버드나무 군락 발달...과거 경작지 형태 등 '상태 양호'

무등산국립공원과 지리산 전남국립공원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던 새로운 습지가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이 15일 발표한 '국립공원 내륙습지 보전·관리방안'에 따른 조사 결과 광주·전남 지역 국립공원에서 2곳의 습지가 확인됐다.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국립공원별 로 습지 가능성을 추출해 신규 습지 발굴 조사가 나서 전국 11곳의 국립공원 내 신규습지를 발굴했다.

광주·전남에서는 무등산 국립공원(북구 금곡동

768번지 일원)과 지리산 전남 국립공원(구례 광의면 25번지 부채골 일대)에서 각 1곳씩 발굴됐다.

새로 발굴된 무등산 습지(면적 1997.79㎡)는 버드나무 군락, 갈대, 사초기둥이 발달해 있으며 향후 계절별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리산 습지(4973.79㎡)는 과거 주거지 및 경작지로 이용하던 지역으로 보이며 묵논(오래 내버려 둔 거칠어진 논) 형태의 습지로 형성된 지역으로 분석됐다.

무등산습지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지리산 습지는 양호한 상태로 조사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습지는 육상생태계와 수생태계 가장자리에 있는 공간으로 수분이 항상 유지되고 있는 축축하고 습한 땅이다. 이번에 확인된 두곳 모두 내륙습지에 해당한다. 내륙습지는 강, 저수지, 산지에 발달한 고산습지, 옴 등을 말한다. 습지는 조류와 양서류, 소형 포유동물에게 서식 환경을 제공하며 한 지역의 대기온도와 습도 등을 조절하는 국지적 기후 조절기능을 갖는다.

국립공원연구원은 새롭게 발견된 습지에 대해 정식 명칭을 붙이고 올해 3월 중 신규습지 현장 조사가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전국에는 총 43개, 광주·전남지역에는 총 12개 습지가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 22대 총선 전담수사반 편성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임정대응에 나섰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16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선거관련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각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각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